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0. 5.(수) 11:00 < 10. 6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0. 5.(수)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	책임자	과 장 남명우 (044-203-4080)
		담당자	사무관 전종형 (044-203-4089)

2022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‘22. 10. 5.(수) 배포 -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과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'**22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(FDI)**를 분석한 자료임

*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을 따름

○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**'22년 9월 30일까지의 잠정실적을 기준**으로 작성하였으며, **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**함

○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**매 분기 발표**되며, **‘22년 (누적)**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**‘23년 1월 발표 예정**

신고기준 215.2억불 · 2,498건, 도착기준 111.6억불 · 1,745건

- 3분기(누적) 기준, 역대 최대 신고금액 및 최초 200억불 돌파 기록 -

- 제조업(+152.0%) · 신규투자(+51.4%) 및 신고(+12.7%) · 도착(+12.7%) 건수 등 증가 -

Ⅰ. 총 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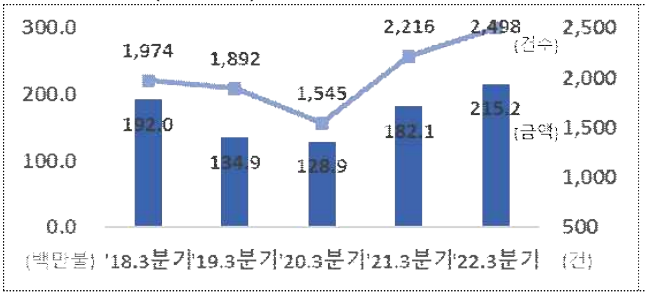
□ (금액) '22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신고기준 215.2억불(전년 동기比 +18.2%), 도착기준 111.6억불(△6.7%)을 기록

< 연도별 3분기 FDI 실적(단위 : 억불) **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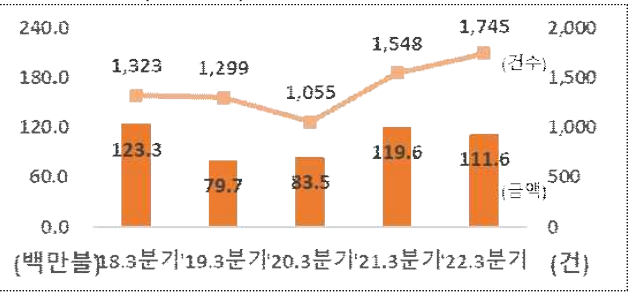
구분	'22년 3분기	(전년동기比)	'21년 3분기	'20년 3분기	5년 평균 ('18~'22)
신고	215.2	+18.2%	182.1	128.9	170.6
도착	111.6	△6.7%	119.6	83.5	103.5

□ (건수) 신고기준 2,498건(+12.7%), 도착기준 1,745건(+12.7%)을 기록

< 연도별('18~'22) 3분기 신고금액·건수 >



< 연도별('18~'22) 3분기 도착금액·건수 >



□ **(평가)**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등 **투자 불확실성에도 불구, 3분기 누적 신고금액** 기준 **역대 최대실적*** 및 **최초 200억불대** 돌파 기록

* 2위 : '18년 192.0억불, 3위 : '21년 182.1억불 / 도착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4위

○ **반도체·전기차·이차전지** 등 **良質의 첨단산업 투자가 다수 유입**되는 등 **제조업**(+152.0%) 투자가 **대폭 증가**

○ 대통령 순방시 **북미지역 투자신고식**('22.9월, 11.5억불) 등 정부의 최근 **투자유치 노력**도 **역대 최대실적 달성에 기여**

○ **신규투자**(3분기 누적 신고금액)가 **역대 최대실적**을 기록하며, **안정된 제조기반, 우수한 인력, 혁신적 기술** 등 **對韓 투자 매력도 확인**

Ⅱ. 세부 동향(업종별 · 국가별 · 대상별 · 자금별 · 지역별)

1. 업종별

□ (신고금액) 제조업(+152.0%, 비중 36.2%)과 기타업종(+32.6%, 비중 4.9%)은 증가, 서비스업(△11.5%, 비중 58.9%) 감소

* 기타업종 : 1차 산업(농·축·수산·광업), 전기가스·수도·환경정화업 등

< 업종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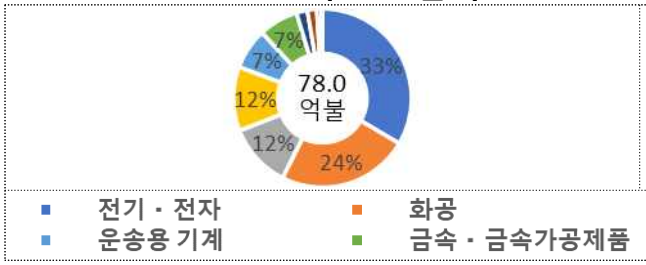


< 업종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

○ (제조업) 78.0억불(전년동기比 +152.0%, 비중 36.2%)

< '22년 3분기 신고금액 >



< '21년 3분기 신고금액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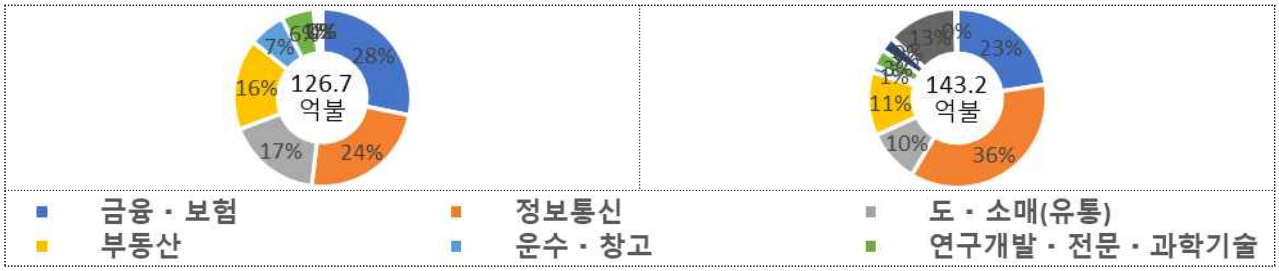
- 증가업종은 섬유·직물·의류(+4,949.1%), 식품(+572.7%), 금속·금속가공제품(+528.8%), 전기·전자(+232.1%), 기계장비·의료정밀(+136.4%) 등

* (주요 투자사례) A社(18.0억불, 전기·전자), B社(9.5억불, 화공), C社(3.6억불, 금속·금속가공제품), D社(2.0억불, 전기·전자)

- 감소업종은 제지·목재(△95.5%), 비금속광물(△81.3%), 운송용기계(△16.3%)

○ (서비스업) 126.7억불(전년동기比 △11.5%, 비중 58.9%)

< '22년 3분기 신고금액 >



< '21년 3분기 신고금액 >

- 증가업종은 **운수·창고**(+368.7%), **여가·스포츠·오락**(194.2%), **연구개발·전문서비스·과학기술**(+70.6%), **도·소매**(+58.7%) 등

- 감소업종은 **사업지원·임대**(△99.2%), **공공·기타서비스**(△82.1%), **숙박**(△74.8%), **정보통신**(△41.7%)

□ **(신고건수) 제조업**(293건, △3.6%)은 **전년동기 대비 감소**, **서비스업**(2,086건, +12.5%)·**기타업종**(119건, +108.8%)은 **증가**하여, **건당 신고금액**이 **제조업에서 크게 증가**(10.2백만불→26.6백만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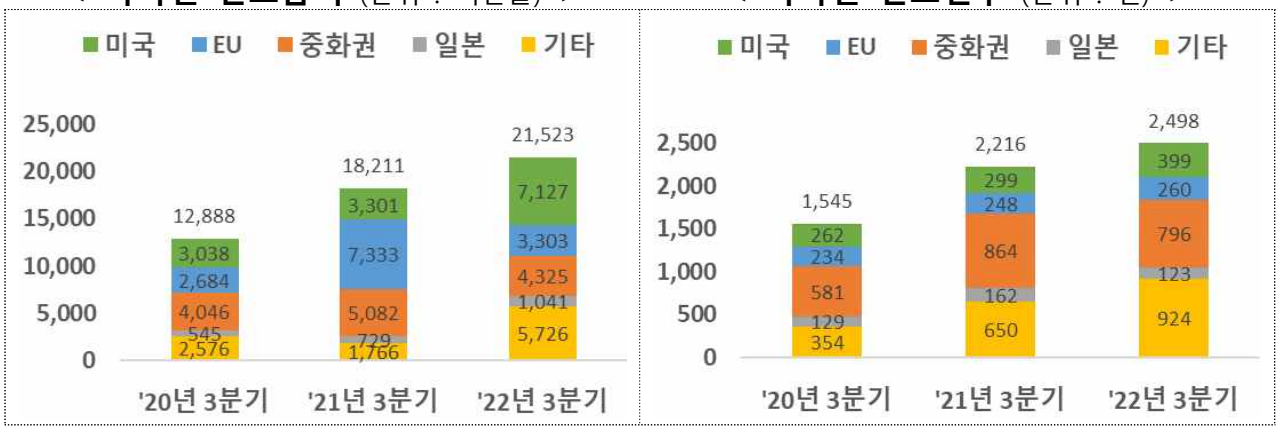
2. 국가별

* EU : 영국 포함, 중화권 : 중국·홍콩·싱가포르·말레이시아·대만

□ **(신고금액) 미국**(+115.9%, 비중 33.1%), **일본**(+42.9%, 비중 4.8%), **기타지역**(+224.3%, 비중 26.6%)은 **전년동기比 증가**, **EU**(△55.0%*, 비중 15.3%), **중화권**(△14.9%, 비중 20.1%)은 **감소**

* 전년도 대형투자에 따른 逆기저효과 : E社(독일, 21.0억불), F社(아일랜드, 18.0억불) 등

< **국가별 신고금액** (단위 : 백만불) >



< **국가별 신고건수** (단위 : 건) >

○ **(미국) 71.3억불**(전년동기比 +115.9%, 비중 33.1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29.8억불, +484.4%)과 **서비스업**(40.9억불, +64.3%) **모두 증가**

  * 주요 투자사례 : A社(18.0억불, 전기·전자), G社(4.5억불, 부동산), H社(4.0억불, 도·소매), C社(3.6억불, 금속·금속가공제품)

- **(유형별) 그린필드형**(49.1억불, +58.5%)과 **M&A형**(22.2억불, +997.3%) **모두 증가**

○ **(EU) 33.0억불**(전년동기比 △55.0%, 비중 15.3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5.9억불, △41.0%)과 **서비스업**(19.5억불, △67.8%) **모두 감소**

- **(유형별) 그린필드형**(18.4억불, △10.2%)과 **M&A형**(14.6억불, △72.3%) **모두 감소**

○ **(중화권) 43.3억불**(전년동기比 △14.9%, 비중 20.1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11.2억불, +77.1%)은 **증가**한 반면, **서비스업**(30.7억불, △28.2%)은 **감소**, 다만 **중국***의 경우 **제조업 투자 증가**(9.2억불, +90.6%)로 **전년동기比 15.4% 증가**

  * 주요 투자사례 : I社(3억불, 화공), J社(2.3억불, 화공)

- **(유형별) 그린필드형**(35.2억불, △14.3%)과 **M&A형**(8.0억불, △17.2%) **모두 감소**

○ **(일본) 10.4억불**(전년동기比 +42.9%, 비중 4.8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4.3억불, +29.5%)과 **서비스업**(6.1억불, +56.8%) **모두 증가**

  * 주요 투자사례 : K社(2.5억불, 정보통신), L社(1.3억불, 정보통신), M社(1.2억불, 기계장비·의료정밀), N社(1.0억불, 화공) 등

- **(유형별) 그린필드형**(7.2억불, +11.4%)과 **M&A형**(3.2억불, +284.9%) **모두 증가**

□ **(신고건수) 미국**(399건, +33.4%)·**EU**(260건, +4.8%)는 **증가, 중화권**(796건, △7.9%), **일본**(123건, △24.1%)은 **감소, 건당 신고금액**이 **미국**(11.0백만불→17.9백만불)과 **일본**(4.5백만불→8.5백만불)에서 **증가**

3. 대상별

□ (신고금액) **그린필드형**(+24.4%, 비중 64.8%) 및 **M&A형**(+8.3%, 비중 35.2%) 투자 **모두 증가**

< 대상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**>**



< 대상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**>**



○ **(그린필드형) 139.5억불**(전년동기比 +24.4%)로, **제조업**(+67.6%) **및 서비스업**(+8.0%) **모두 증가**

* 주요 투자사례 : O社(5.7억불, 식품), P社(1.3억불, 전기·전자), G社(4.5억불, 부동산), L社(1.3억불, 정보통신)

○ **(M&A형) 75.7억불**(전년동기比 +8.3%)로, **서비스업**(△36.7%)은 **감소**한 반면 **제조업**(+520.3%)은 **크게 증가**

* 주요 투자사례 : A社(18.0억불, 전기·전자), B社(9.5억불, 화공)

□ **(신고건수) 그린필드형**(2,287건, +14.8%) 증가, **M&A형**(211건, △5.8%) **감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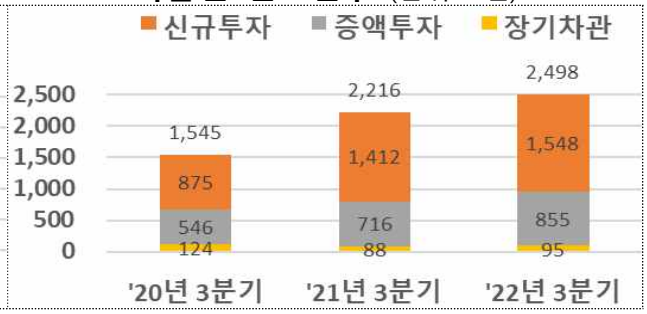
4. 자금별

□ **(신고금액) 신규투자**(+51.4%, 비중 46.7%)는 **증가**, **증액투자**(△0.2%, 비중 51.0%) 및 **장기차관**(△12.6%, 비중 2.3%)은 **감소**

< 자금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**>**



< 자금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**>**



○ **(신규투자) 100.4억불**(전년동기比 +51.4%)로 **제조업**(+190.7%)**·서비스업**(+8.0%) **모두 전년동기比 증가**

* 주요 투자사례 : A社(18.0억불, 전기·전자), B社(9.5억불, 화공), Q社(4.8억불, 금융·보험)

○ **(증액투자) 109.8억불**(전년동기比 △0.2%)로 **서비스업**(△18.4%)은 **감소**한 반면 **제조업**(+1,418.3%)에서 **크게 증가**

* 주요 투자사례 : R社(5.4억불, 정보통신), S社(4.6억불, 금융·보험), T社(3.5억불, 운수·창고)

○ **(장기차관) 5.0억불**(전년동기比 △12.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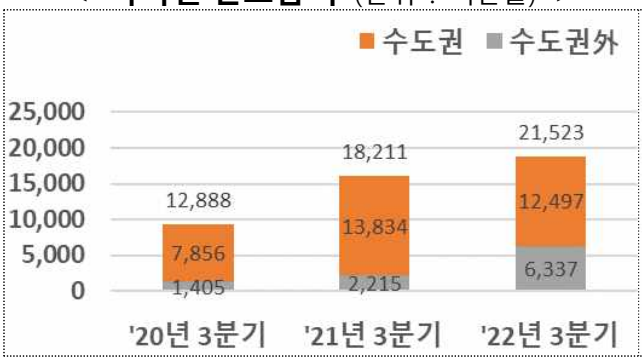
□ **(신고건수) 신규투자**(3,370건, +9.6%)**·증액투자**(7,431건, +19.4%)**·장기차관**(95건, +9.6%) **모두 증가, 건당 신고금액**은 **증액투자**만 **증가**(10.8백만불→15.4백만불)

5. 지역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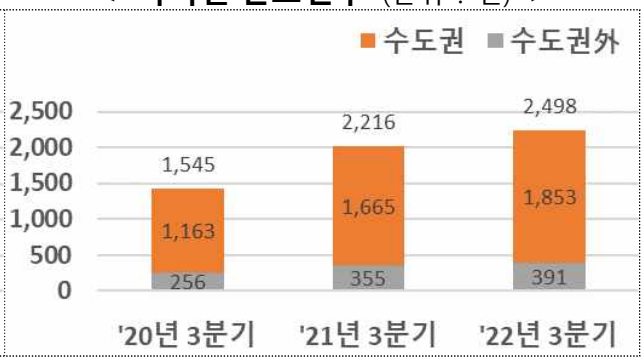
*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/ 수도권 外 : 이외 14개 시·도

□ **(신고금액) 수도권**(△9.7%, 비중 58.1%)은 **감소, 수도권 外**(+186.0%, 비중 29.4%)는 **증가**

< 지역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**>**



< 지역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**>**



○ **(수도권) 125.0억불**(전년동기比 △9.7%)로 **제조업**(+29.1%)은 **증가**한 반면 **서비스업**(△14.6%)은 **감소**

* 증가 시·도 : 경기(+149.5%) / 감소 시·도 : 인천(△42.0%), 서울(△24.6%)

○ **(수도권 外) 63.4억불**(전년동기比 +186.0%)로 **제조업**(+333.4%) **및 서비스업**(+27.4%) **모두 증가**

* 증가 시·도 : 전북(+2,483.2%), 제주(+1,066.4%), 충북(+908.1%), 전남(+225.9%), 대구(+172.5%), 울산(+127.6%), 경남(+48.5%), 부산(+34.2%)
감소 시·도 : 강원(△95.5%), 세종(△85.1%), 대전(△77.8%), 경북(△44.4%), 충남(△9.7%), 광주(△7.7%)

□ (신고건수) 수도권(1,853건, +11.3%), 수도권 外(391건, +10.1%) 모두 증가

○ (수도권) 제조업(△0.6%) 소폭 감소, 서비스업(+10.3%) 증가

* 증가 시·도 : 인천(+27.3%), 서울(+9.9%), 경기(+3.5%)

○ (수도권 外) 제조업(△17.6%) 감소, 서비스업(+15.3%) 증가

* 증가 시·도 : 광주(+200.0%), 충남(+89.3%), 경북(+52.2%), 부산(+31.0%), 전남(+17.9%), 충북(13.3%) / 동일 : 강원
감소 시·도 : 세종(△75.0%), 대전(△50.0%), 경남(△26.4%), 울산(△16.7%), 대구(△12.0%), 제주(△9.7%), 전북(△9.5%)

Ⅲ. '22년 3분기 외투 주요 사례(신고금액 상위 24건)

구분	내용	금액	업종	국가
그린필드 (43.3억불)	▸ **(○○社)** 고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생산	1억불 이상	제조 (식품)	과테말라
	▸ **(○○社)** 위탁급식업체 투자		서비스 (금융·보험)	케이만 군도
	▸ **(○○社)** 제주 리조트 개발		서비스 (부동산)	미국
	▸ **(○○社)** 신규 물류센터 건립		서비스 (도·소매)	미국
	▸ **(○○社)**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		기타 (전기·가스)	네덜란드
	▸ **(○○社)** 쓰레기 처리설비		서비스 (금융·보험)	싱가포르
	▸ **(○○社)** 레지던스 개발		서비스 (부동산)	미국
	▸ **(○○社)** 신규 물류센터 건립		서비스 (도·소매)	미국
	▸ **(○○社)** 미정		제조 (화공)	중국
	▸ **(○○社)** 미정		제조 (화공)	중국
	▸ **(○○社)**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		기타 (전기·가스)	네덜란드
	▸ **(○○社)** 친환경차 생산 확대		제조 (운송용기계)	버진 아일랜드
	▸ **(○○社)** 전력반도체 생산 확대		제조 (전기·전자)	미국

M&A (59.0억불)	▸ **(○○社)** 이차전지 소재 기업 지분 인수	1억불 이상	제조 (전기·전자)	미국
	▸ **(○○社)** 플라스틱 필름 기업 지분 인수		제조 (화공)	케이만 군도
	▸ **(○○社)** 게임개발사 지분 인수		서비스 (정보통신)	네덜란드
	▸ **(○○社)** PEF		서비스 (금융·보험)	케이만 군도
	▸ **(○○社)** PEF		서비스 (금융·보험)	케이만 군도
	▸ **(○○社)** 수소사업 목적 지분 투자		제조 (금속)	미국
	▸ **(○○社)** 사모펀드의 보유지분 확대		서비스 (운수·창고)	케이만 군도
	▸ **(○○社)** 피부미용기기 기업 지분 취득		제조 (기계장비)	케이만 군도
	▸ **(○○社)** 통신 기업 주식예탁증서의 주식 전환		서비스 (정보통신)	일본
	▸ **(○○社)** PEF		서비스 (금융·보험)	몰타
	▸ **(○○社)** PEF		서비스 (금융·보험)	몰타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